

연구보고(수시과제)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책임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결과요약

1. 연구목적

-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 근거하여 개발된 기준의 부모-자녀관계 척도들은 부모-자녀관계를 단순히 돌봄과 통제라는 차원에서 다루어 왔음.
-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측은감, 죄송스러움, 고마움, 효의식 등과 같은 문화 특수적 측면은 기준의 서구이론과 도구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첫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준의 서구이론들을 개관하고 한국문화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과 부각되는 주요한 문화적 차이점들을 비교·검토하였음.

둘째,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들에 대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음.

●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첫째, 예비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자애’, ‘현신’, ‘친밀’, ‘존경’, ‘감사’ 및 ‘죄송’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표상에서는 ‘엄격’, ‘존경’, ‘자애’, ‘현신’, ‘친밀’, ‘감사’ 및 ‘죄송’ 등의 범주로 나눌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음.

둘째, 연구 I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음. 각 요인에 대한 요인 명은 ‘친밀’, ‘현신’, ‘존경’ 및 ‘엄격’으로 명명하였음.

넷째, 예비조사 및 연구 I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에 대해 반분법과 내적합치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타당화

첫째,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기준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음. 그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3. 정책제언

●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나 정책방안 마련에 있어 문화적 보편성과 함께 문화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함

- 부모-자녀관계 연구나 이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해 및 고찰이 선행되어야 함.
- 향후 부모-자녀 관련연구나 정책수립에 있어 부모-자녀관계를 문화 보편적 관점 뿐 아니라 문화 특수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방안을 만들어갈 때 보다 타당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문화에 적실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부모-자녀관계 관련 이론연구와 실천연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이론적 연구로는 ‘세대 간 갈등원인 탐색과 세대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혹은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효율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등의 연구주제가 가능할 것임.
- 또한 한국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인 ‘대학입시제도로 인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등도 필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실천적 대응방안 연구 주제로는 부모-자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혹은 한 가족이 더불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족 만들기 캠프 운영방안 연구’ 등의 주제가 가능할 것임.
-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핵심요소가 되는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와 이의 활용은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다루어야 할 청소년 지원정책임.

- 부모 및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란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뜻함.
- 이는 부모-자녀 간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문제를 예방하

는데 도움이 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임.

- 따라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인 부모 및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사회화의 주요기관인 교육현장에서 부모교육과 관련된 과목이나 정규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청소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려서부터 배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1)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론적 개관	6
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6
3)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타당화	6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7
2) 전문가 자문	7
3) 설문조사	7
4) 통계분석	7
II. 이론적 배경	9
1.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선행연구 개관	11
1) 부모의 양육태도	11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14
3) 가족체계이론	16
2.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대안적 접근: 문화심리학의 이해	20
1) 실험심리학과 문화심리학 태동의 역사적 배경	20
2) 비교문화심리학의 인간이해와 특징	22
3) 문화심리학의 인간이해와 연구대상	24
3. 한국 문화에서의 가족관과 부모-자녀관계	26
1) 한국문화의 가족관	26
2)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29

III. 연구결과	33
1. 예비조사	35
1) 연구대상	35
2) 연구절차	35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35
4) 결과	36
5) 요약 및 논의	40
2. 연구 I	42
1) 연구대상	42
2) 연구절차	42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43
4) 결과	43
5) 요약 및 논의	52
3. 연구 II	54
1) 연구대상	54
2) 연구절차	54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54
4) 결과	55
5) 요약 및 논의	58
4. 연구 III	59
1) 연구대상	59
2) 연구절차	59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59
4) 결과	61
5) 요약 및 논의	64

IV. 종합논의 및 결론	65
1. 연구의 요약	67
2. 논의 및 결론	68
3. 정책제언	72
참고문헌	76
부록	85

표 목 차

<표 III-1>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	37
<표 III-2>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	38
<표 III-3> 예비문항	38
<표 III-4> 부모-자녀관계 척도 문항분석표: 어머니	44
<표 III-5> 부모-자녀관계 척도 문항분석표: 아버지	45
<표 III-6> 부모-자녀관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 어머니	49
<표 III-7> 부모-자녀관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 아버지	50
<표 III-8>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구성 및 신뢰도	51
<표 III-9> 부모-자녀관계척도 4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	56
<표 III-10>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62
<표 III-11>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변인들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63

그 림 목 차

[그림 III-1] 부모-자녀관계 척도(어머니)의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56
[그림 III-2] 부모-자녀관계 척도(아버지)의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5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家族)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을 함께 나누는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또한 다른 사회적 관계와는 달리 시간과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특성이 있다(Goldenberg & Goldenberg, 1995). 부모-자녀관계는 이러한 가족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관계이며, 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관계이기도 하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관계에서 경험하는 질적 측면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유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김재은, 1974; Bronfenbrenner & Mahoney, 1975).

특히 관계주의 문화로 대별되는 한국문화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강한 유대감과 일체감을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이유로 심리학 뿐 아니라 여러 관련 학문분야에서도 부모-자녀관계를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주요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최상진, 김혜숙 및 유승엽(1994)은 한국문화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¹⁾”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개념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감정·의식 동일체적 친애 관계를 말한다. 즉 부모-자녀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한 일심동체

1) ‘부자유친(父子有親)’이란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 차용하였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간의 친함’이란 의미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관용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정(性情)’이란 심학(心學)에서 마음의 구성 요소 중 타고난 기질(性)과 이러한 마음의 발현(情)을 의미한다(금장태, 1998). 따라서 부자유친성정이란 ‘부모-자녀 간에 존재하는 친밀한 마음과 그것의 발현’을 총괄하는 의미를 지닌다(이장주, 2002).

(一心同體)적 의식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부모나 자녀가 자신들의 삶에서 각각 경험하는 기쁨이나 슬픔 등의 정서경험이 서구적 의미의 대리(代理)만족이나 대리슬픔이 아니라 곧 자신의 느낌처럼 동일하게 경험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만일 위에서 제시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서구의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 문화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모-자녀관계가 지나치게 밀착(密着)되어 있고, 융합(融合)되어 있는 관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가 역기능적이며,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독립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문화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은 물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고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 이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자신만의 뚜렷한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을 형성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인간관과 구별된다.

실제로 Tamura와 Lau(1992)는 가족구성원의 화목을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미분화 보다는 관계의 단절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동직(1999) 역시 한국문화에서는 관계성이 개별성 보다 심리적 적응에 보다 중요한 설명변인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모의 엄격함이나 통제에 대한 자녀의 인식에 관한 문화 차 연구들에서도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Kim과 Choi(1994)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엄격함을 자신의 학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였으며,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성취동

기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서구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²⁾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볼 때,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모-자녀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도 문화를 고려한 접근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주로 서구 문화의 부모-자녀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론들인 부모양육태도(Schaefer, 1959; Symonds, 1949), 부모-자녀의사소통(Barnes & Olson, 1982), 가족체계이론(Olson, Sprenkle., & Russel, 1979) 등을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고, 이 이론들에서 사용된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단순히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여 왔다.

물론 위의 이론들에 근거한 척도가 포함하는 변인들 즉, 부모에 대한 친밀감, 애정 혹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수용 등과 같은 내용들은 인간의 문화 보편적 특성들로서 국내의 연구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측은감, 죄송스러움, 고마움, 효 의식 등과 같은 것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위와 느낌인 희생과 헌신, 혈육의식, 동일체감, 안쓰러움 등과 같은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서구이론과 도구로 충분히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표상과 문화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문화를 고려한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론적 배경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제시하였음

2. 연구내용

1)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이론적 개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준의 서구이론들을 개관하고 한국문화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과 부각되는 주요한 문화적 차이점들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들에 대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근거로 척도개발 작업을 수행하였다. 척도개발과정으로 먼저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한국청소년들의 표상을 조사하였다. 이후 응답결과에 대한 내용분석과 최상진 등(1994)이 제기한 “부자유친성정”개념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문항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개발된 예비문항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선정된 문항들의 구성타당도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고, 추출된 각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3)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타당화

예비조사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가 이 연구의 표집에 대해서만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표본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검증을 수행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국내외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측면을 다룬 문헌들을 중심으로 문화에 따른 차이를 비교·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척도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3) 설문조사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을 위해 예비조사 및 본 연구 과정에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158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총 566명의 응답결과를 연구 I ~연구Ⅲ의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4) 통계분석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자유응답형식으로 구성된 설문응답에 대해 내용분석과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반분신뢰도 및 내적합치도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교차타당도와 공인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2.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내용은 각 해당 연구의 연구방법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선행연구 개관
2.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대안적 접근 :
문화심리학의 이해
3. 한국 문화에서의 가족관과 부모-자녀
관계

II. 이론적 배경

1.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선행연구 개관

이 절에서는 기존 서구에서 연구되어 온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이들 연구들이 지닌 제한점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의 부모-자녀관계 특징을 검토하였고, 향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제안하였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내적 신념이나 가치를 의미한다(이송이, 2006).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발달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서구의 선구적 연구결과들(Baumridnd, 1967; Heilburn, 1973; Parker, Tupling., & Brown, 1979; Schaefer, 1959; Symonds, 1949)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유형화한 Symonds(1949)는 부모-자녀관계를 거부-보호적 차원과 지배-복종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이 두 차원에 대해 거부적 차원을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보호적 차원을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배적 차원을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적 차원은 맹종형과 익애형으로 세분하여 분류한 바 있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적대감의 표출 행동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육태도 아래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반항, 공격적 행동, 거짓말, 도둑질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사랑과 주의를 끌기 위한 태도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둘째, 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염려를 하는 행동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성숙을 늦추고, 의존성을 가중시키며, 교우관계에서 고립되기 쉬운 부정적 영향 요소가 된다.

셋째, 지배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높은 규준을 설정하여 자녀가 이 규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양육태도이다. 지배적 양육태도 아래에서 성장한 자녀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이 된다.

마지막으로 복종형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얻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양육태도 아래에서 성장한 자녀는 정서적인 발달에 장애를 겪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며, 책임감과 협동심이 부족하게 된다.

Symonds가 제기한 이상의 양육태도 분류는 양육태도의 체계화에는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즉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상사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한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허철수, 2003).

반면, Schaefer(1959)는 일반가정을 사례로 부모양육 태도를 연구하여 부모 양육태도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의, 통제-자율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애정적인 부모는 정서적 따뜻함, 공감 및 친밀감, 수용, 지지 등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제적인 부모는 과보호, 과도한 접촉, 독립심을 방해하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Baumridnd(1967)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을 크게 허용적-의애적 유형(permisive-indulgent style), 권위주의적 유형(authoritarian style)과 권위 있는 유형(authoritative style)의 세 가지로 대별하여 각 부모-자녀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바 있다. 즉 “권위주의적 유형”的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경우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경험하며, 애정과 통제가 균형적인 “권위 있는 유형”的 부모 밑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자기통제력 및 자기신뢰도가 높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사

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연구(최윤호, 1997)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 외에 Heilburn(1973)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수용적 양육(낮은 통제-높은 양육), 방임적 양육(낮은 통제-낮은 양육), 과보호적 양육(높은 통제-높은 양육), 거부적 양육(높은 통제-낮은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Parker 등(1979)은 과잉보호와 돌봄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구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 대체로 돌봄과 통제의 양 차원에서 곡선적인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문화 보편적으로 입증될 것이란 가정 하에 국내에서도 그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문화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의 차이와 그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지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박영신과 김의철(2000)은 한국의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통제, 무관심, 적대의 변인으로 측정하는 Rohner와 Pettengill(1985)의 ‘자녀양육태도 설문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 동기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서양의 청소년들과 달리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들의 성취동기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갑순, 박영신과 김의철(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Rohner와 Pettengill(1985)는 미국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연구하였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부모의 적대적이고 비 신뢰적이며,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부모들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독립성과 자기신뢰를 강조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엄격함을 통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

인다(박영신, 김의철 2004; Feldman & Rosenthal, 1991; Kim &, Choi, 1994)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부모양육태도 연구는 이외에 미국인과 이탈리아 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관찰연구를 수행한 New와 Richman(1996)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독립에 초점을 두었고, 이탈리아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리고 Greenfield와 Suzuki(1998)는 부모-자녀 양육태도의 문화 간 차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독립모형과 부모와 성인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가족과 집단의 욕구가 우선되는 상호의존모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관계의 상호관계나 양육태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지각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parent-child communication)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인간이 가족관계로부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장명숙, 1982)이며, 사람들 사이의 감정, 태도, 생각, 신념 등을 전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또한 의사소통은 표현된 언어적 행위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의미를 주고받을 때에 사용하는 모든 상징과 단서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Satir, 1983).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연구결과들(Barnes & Olson, 1982; Beaubien, 1970; Gordon, 1975; Satir, 1972)을 살펴보면, 의사소통방식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즉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여,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인지·정서·심리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circumf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방해요인이 되는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또한 Gordon(1975)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나-메시지(I-message)와 너 메시지(You-message)로 구분하였다. 나 메시지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느낌을 전달하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방식이며, 너-메시지는 설교, 명령, 경고 등의 형태를 띠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한편, Beaubien(1970)은 자녀와 부모의 대화형태를 부모-자녀 쌍방 차단, 부모차단-자녀개방, 부모개방-자녀차단, 부모-자녀 쌍방개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화형태를 쌍방개방형으로 보았다. 이 유형의 특성으로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성장을 돋는 대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밖에 Satir(1972)는 의사소통 유형을 순기능적 의사소통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김정희(1987)는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수평·협력적인 쌍방 통행식과 수직·강압·지시적인 일방 통행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부모-자녀 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은 물론 바람직한 태도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구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이론을 한국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문화적 차이와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특징은 밖으로 표현된 방식보다는 마음으로 교류하는 “심정교류(心情交流)” 방식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최상진, 1999).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이처럼 의사소통 방식이 표현되는 언어적 방식보다는 마음으로 전달되는 방식 즉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교류방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많이 사용한다(최상진, 2000). 따라서 상대의 마음을 미리 읽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시되며, 서로 상대방에게 밖으로 드러내놓지 않는 심정(心情)³⁾을 주의 깊게 읽고, 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정교류 방식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한다.

심정교류에서는 상대방의 심정에 대한 반응양식이 단순히 ‘같은 느낌’을 느끼는 소극적 경험의 반응뿐만 아니라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행동을 촉발시킨다. 또한 심정교류는 ‘이해(understanding)’의 방식이라기보다는 ‘경험(experience)’의 방식으로 교류되는 측면이 강하다(이장주, 2002).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 친밀 관계의 원형이 되는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상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적 경험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치환하여 공경험(co-experience)하는 일에 습관화되어있고, 당사자적 입장에서 주관화(subjectify)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1997).

이처럼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두터운 심정관계이며, 심정교류를 통해 이러한 심정관계는 더욱 공고화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을 타 문화권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체계이론

Olson, Sprenkle, 및 Russell(1979)⁴⁾이 순환모델(Circumflex Model)을 기초로

3) 한국어에서 마음이란 영어의 mind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영어의 mind는 reason과 passion을 모두 포괄하나, 한국말의 마음은 주로 passion과 관계가 많다. 즉 마음은 감정, 기분, 의지, 관심, 의향 등을 포함하는 intentionality(지향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thinking을 뜻하는 ‘생각’과는 구분된다.

하여 제시한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검증한 연구들 (Barber, 1992; Clarke, 1984; Druckman, 1979; Galvin & Brommel, 1986;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Portner, 1981;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 이 있다.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의 Circumplex는 circular와 complex를 복합시킨 단어로 가족기능 가운데, 응집성과 적응성이 의사소통이라는 변인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고, 가족주기에 따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맺는 정서적 결속(emotional bonding)과 가족체계 내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개별적 자율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응집성의 정도에 따라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유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및 밀착(enmeshed)의 네 집단으로 구분된다.

또한 가족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 적응성의 정도에 따라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경직(rigid), 구조(structured), 융통(flexible), 혼란(chaotic)의 4가지로 구분된다(Olson et al., 1979, 1983).

순환모델을 근거로 한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Olson 등(1979)의 주장대로 임상적 치료를 받고 있는 혹은 받았던 가족이 일반 정상 가족보다 응집성과 적응성의 양극단의 가족체계 범주에 속하였고(Clarke, 1984; Druckman, 1979; Galvin & Brommel, 1986), 고위험(high-risk) 가족형태를 이룬다고 보고(Garbarine, Sebes, & Schellenbach, 1985)되었다. 즉 순환적 모델의 곡선적(curvilinear) 가정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집성의 극단 범주에 속하는 밀착(enmeshment)관계 일수록 비행 수준이 높았으며, 자살 그리고 식욕장애와 같은 내현적 증상(internalizing problems)들을 더 많이 보임을 밝혀냈다 (Barber, 1992; Barber, Olsen, & Shagle, 1994; Bell, 1982;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 그리고 밀착된 관계가 가족 구성원간에 심리적, 정서적 융합

(fusion)을 조장하며, 잠재적으로 개별화와 심리-사회적 성숙의 발달과 유지를 방해한다고 보았다(Barbarin, 1984; Barber et al., 1994; Greenberger & Sorensen, 1974;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인, 순환모델의 직선적(linear)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즉, 응집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김수연, 김득성, 1993; 안양희, 1988; 최연실, 1996), 불안이나 우울을 더 적게 경험(박금희, 1986; 전귀연, 1993)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1996; 전귀연, 1993).

또한 대인관계적 측면에도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최희량, 1998; 한혜준, 1994)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자아분화에서 역시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박유화, 2001; 심혜숙, 신영규, 1994)고 보고되었다.

서구의 연구에서도 순환모델의 곡선적(curvilinear)관계를 비판하고, 직선적(linear)관계를 주장하는 학자들(Anderson & Gavazzi, 1990; Amerikaner, Monks, Wolfe, & Thomas, 1994; Dayley, Sowers-Hoag, & Thyer, 1991; Farrell & Barnes, 1993)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지 표본 크기의 문제나, 응집수준의 극단을 측정하는 것의 한계,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측정했다는 점 등의 방법론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결과들에서 일관되게 직선적 관계가 나타나는 것의 이유는 서구의 직선적 관계를 지적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영향이 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Olson 등(1983)도 순환모델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순환모델의 적용에 있어 문화에 따른 기대와 만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즉, 가족응집성의 수준이 비록 양극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가족성원들이 양극단에 속하는 행동을 지지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가족체계는 기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Olson 등(1983)의 가설과 위의 순환모델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

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부모-자녀관계나, 가족구성원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결속(emotional bonding)”을 나타내는 가족옹집성의 극단수준인 밀착된 관계가 단지 서구상담이론의 논리대로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고, 여러 심리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단정 지울 순 없을 것이다.

심혜숙, 신영규(1994)도 Olson의 가족옹집력의 점수가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가족문화에서 높게 나오는 것은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면서, Olson 등(1983)의 주장대로 옹집력이 너무 높아 가족구성원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방해받아 자아분화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사회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한국의 경우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밀착의 질적인 내용에 있어 병리적인 융합의 상태는 문화를 초월하여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나, 밀착관계의 정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관계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경험의 내용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응의 결과는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서구의 개인주의 입장에서의 밀착된 관계는 관계주의 문화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잘 연결되어있고, 기능적인 관계형태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자녀관계 연구의 대안적 접근: 문화심리학의 이해

이 절에서는 문화심리학적 이론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존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접근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실험심리학과 비교문화심리학의 인간이해와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대안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제안하였다.

1) 실험심리학과 문화심리학 태동의 역사적 배경

현대심리학은 Wilhelm Wundt가 1879년 독일의 Leipzig 대학에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세움으로써 과학적 학문의 한 분야로 시작되었다. Wundt는 그의 초기 심리학 연구에서 실험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언어와 관습에 의해 통제됨을 관찰한 후, 실험법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생의 후반부를 문화심리학(Volkerpsychologie)의 연구에 헌신하였다(Danziger, 1983).

Wundt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크게 감각지각 수준의 생물심리현상과 의식과 고등정신 기능에 해당되는 사회-문화심리현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전자의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론을 후자의 연구에서는 신화, 언어, 풍습, 역사적 유물, 민속 및 관습 등을 분석하는 현대적 의미의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최상진, 1999). 즉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과학의 두 가지 전통인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과 인문과학(Geisteswissenschaften)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함을 주창하였다(van Hoorn & Verhave, 1980).

그러나 Wundt의 제자들에 의해 북미 지역으로 전파된 심리학은 당시의 철학사조인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근거로 한 논리 실증주의(實證主義)적 연구방법인 실험연구에 편중된 접근만을 고집하게 되었고(민경환, 1986), Wundt가 제기 하였던 인문과학적 접근방법은 자연히 명맥을 잃게 되었다(Danziger, 1983).

이처럼 자연과학을 심리학의 모델로 한 기존의 전통심리학은 연구의 이론

적 틀과 방법론을 협소하게 설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실증주의와 조작주의를 표방하는 실험심리학적 연구 방법이 심리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연과학적 모델을 따르는 실험심리학은 실증주의적 인과모델을 기초로 관찰 가능한 실체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意識), 작인(作因), 의도(意圖), 목표(目標)와 같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측면들은 “소음(noise)”으로 간주되고 연구설계에서 제외되었다(김의철, 2000).

이러한 서양의 전통적 과학이론은 데카르트적 존재론(存在論)과 인식론(認識論)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데, 데카르트적 존재론은 본질적으로 자연현상과 이것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자연현상 내의 대상들을 인간이 객관적으로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정모, 1997). 또한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을 설명하는 절대적이고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진리가 지식으로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은 허상에 불과하며(Gergen, 1973), 서구인 특히 미국 백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문화 특수적인 것일 뿐 관계 중심적인 사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비판과 자성의 움직임이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조궁호, 1997; 최상진, 2000; 한규석 1991; Gergen, 1985; Harré, 1993; Shweder, 1991).

이처럼 전통심리학은 심리현상의 보편적 기제를 전제하고 이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동안 이러한 서구 주류 심리학에 대한 대안적 연구방법들로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수원, 1999; 조궁호, 1999; 최상진, 2000; 한덕옹, 1999; Bruner, 1990, Gergen 1982, Harré, 1993; Kim & Berry, 1993). 이들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되는데, 첫째는 다음에 논의될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이며, 둘째는 동양 고전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동서양의 문화 전통 내에서 인간 이해

의 차이를 대비해 봄으로써 동양적 심리학의 기초를 탐색해 보려는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에서의 독특한 행동 또는 특성을 현대 심리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구분된다(조궁호, 1997).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접근 방법 중, 비교문화심리학적 방법과 문화심리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비교문화심리학의 인간이해와 특징

인간 이해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방법들 중 하나인 비교 문화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은 1960~70년대를 전후해서 미국 심리학계에서 급격히 연구 활동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연구 분야이다. 특히 Hofstede(1980, 1983)가 66개국에 걸친 광범위한 문화권을 비교하여 제시한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 간 비교연구는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Hofstede(1980)가 제시한 개인주의 특성은 ‘나’의식, 자율성, 정서적 독립, 개인의 주도성, 사생활에 대한 권리, 즐거움의 추구, 보편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집단주의 사회의 특성으로는 ‘우리’의식, 집단정체성, 정서적 의존, 집단의 유대, 권리보다는 의무,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특정주의 의식이 강하다고 보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특성을 제안하였다.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김의철, 2000). 첫째, 기본이 되는 심리적 기제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는 피상적인 맥락요소이다(Schweder, 1991). 둘째, 다윈의 이론은 전통문화에서 현대문화, 원시문화에서 문명화된 문화, 후진문화에서 선진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를 발달 단계 혹은 진화 단계에 따라 순위 매기는 데 사용한다. 셋째, 연구자들은 문화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관심을 갖는다(Berry, 1980; Berry et al., 1992). 그러나 비교문화심리학의 목적은 문화자체의 관심보다는 서구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인 심리학”을 추구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었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김정운과 한성열(1998)은 이러한 비교문화심리학의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구체적인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 예로 비교문화심리학 분야의 대표적 이론인 Triandis(1989)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이론⁴에 대해 문명은 종적차원에서 횡적차원으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발달하며, 문명발달의 최고의 차원은 횡적-개인주의임을 그의 이론에서 전제(前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상진(2000) 역시 비교문화심리학에서 제안하는 개인주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준거와 속성 및 이와 연계된 심리특성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실체성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나, 집단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을 허구적 변인(dummy variable)으로 설정하여 그 실례를 일본에서 찾아 동양문화권의 특성으로 구성하였다는 인상이 짙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와 상치되는 속성들의 단순한 모음(collection) 또는 기타범주와 같은 개념으로 최근에 대두되는 한국(최상진, 1997), 중국(Hwang, 1998)의 관계주의(relationalism)개념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⁵)이라 지적한 바 있다.

비교문화심리학은 이처럼 실험심리학적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점을 지닌다. 즉 비교문화심리학에서는 서구 심리학의 개념, 현상, 이론을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로 여기고, 이를 변수에 대한 측정절차를 마련하여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단지 양적인 차이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서구이론과 차이나는 결과는 그 문화의 특수현상이지, 심리학 원리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문화심리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Triandis(1989)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횡적차원과 종적차원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종적집단주의”, “횡적집단주의”, “종적개인주의”, “횡적개인주의”的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5) 집단주의는 집단의 목표나 요구에 따라 개인의 개성과 욕구가 억제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뜻하는 반면, 관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연합(coalition)을 이루는 형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전자는 집단에 대한 자신의 종속으로, 후자는 자신의 확대를 통한 관계의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본 동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최상진, 2000).

3) 문화심리학의 인간이해와 연구대상

비교문화심리학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은 문화적 차이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다(한규석, 1997). 그러나 한 문화에 고유한 속성이나 사회-문화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예를 들어, 한(恨), 정(情), 효(孝), 체면(體面), 우리성 등).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연구 방법이라 볼 수 있다(이수원, 1984; 최상진, 2000).

문화는 개인과 집단이 그들의 자연 환경 및 인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속성으로 정의된다(김의철, 2000). 우리는 문화를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또한 문화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습득하게 된다.

서구의 주류심리학이나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문화를 취급하는 방식은 문화가 인간심리에 미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인간심리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에서 문화와 심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문화를 통해 구성된다는 입장을 편다. 결국 인간은 “문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은 자기보존의 욕구를 가진다.”는 보편명제는 생물학적 보편성에 입각한 인간의 심리를 말해주지만, 인간은 문화적 존재로서, ‘자기보존’의 욕구를 ‘문화적 이상’에 따라 문화권마다 다르게 표현한다. 즉 식량이 부족할 때, 어떤 문화권에서는(아이는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굶겨죽이고 노인을 먹여 살린다. 그러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린 생명을 먹이기 위해 노인을 산에 갖다 버린다(고려장).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린 생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력이 없는 노인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가격하여 거기서 흘러나온 피를 대지에 뿌린다(‘徵’자의 언어인류학적 의미).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노인의 머리를 쪼개고(조상의 지혜와 용기를 전수받기 위해) 골을 나눠먹는다. 자기보존이라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지만, 자기보존의 ‘욕구를 실행하는 방식’은 이처럼 문화권에 따

라 다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 문화권의 ‘문화적 특성’에 입각한 인간심리의 ‘맥락적 분석’이 요구된다(이승환, 1999).

최상진(2000)은 문화심리학의 연구 대상과 분석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문화심리학에서는 ‘마음화되고 생각화된’ 문화적 측면을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마음화 되고 생각화 된 문화란 역사-문화적 과정과 구조 속에서 집단과정과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공구성(共構成)한 상징 및 의미체계를 말한다. 즉 문화는 탈 맥락(脈絡)적이며, 보편적 심리기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맥락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이나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심리학이나 비교문화심리학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면 문화심리학은 개인 또는 집단의 실제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적 경험과 삶, 실천적 활동 속에서 구성되는 의미, 동기, 의도성,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을 포함하는 마음과 문화의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 할 수 있다(최상진, 한규석, 2000). 또한 문화심리학은 전통심리학에서 금기시 했던 ‘마음’과 ‘문화’를 심리학의 중심부에 들여놓았다는 점과, 인간을 전통심리학의 핵심전제인 완성된 심리체(psychic unity)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 가운데 공유되고 공구성된 심리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최상진, 한규석, 1997).

3. 한국 문화에서의 가족관과 부모-자녀관계

이 절에서는 먼저 유교적 가족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한국문화의 가족관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징과 자녀 양육방식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한국문화의 가족관(家族觀)

(1) 유교적 가족주의의 특징과 의미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문화는 근세에 들어 기독교의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복잡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교(儒敎)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물론 가족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가족주의의 근간(根幹)이 되는 유교사회에서는 서양사회처럼 개인을 사회구성의 기초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사회의 기초단위로 인식되는 사회였다. 따라서 개인의 존재는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만 그 가치가 인정되었고, 성공이나 성취도 개인보다는 가문(家門)의 영광으로 여겼다(백혜리, 1999).

최봉영(1996)도 유교사회에서의 개인 실현을 곧 가(家)의 실현으로 보았다. 이것은 본가(本家)에서 태어난 ‘내’(自家)가 업가(業家)적 무대에서 일가(一家)를 이루어 국가(國家)적 무대에서 대가(大家)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완성은 입신양명(立身揚名)⁶⁾으로 나타났다.

입신양명이란 자기 자신의 개체적 실현보다는 부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여 자신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家)의 파괴는 곧 삶의 파괴를 의미하기에 무엇보다 본가(本家)를

6) 입신의 본뜻은 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입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구비하게 된다. 따라서 입신이란 몸을 세우는 것인 동시에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이계학, 1991).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유교적 삶에서 이러한 가(家)의 개념은 단순히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본가(本家)는 구성원으로서 가장(家長)과 가족, 생업으로서 가업(家業)과 가산(家產), 행위규범으로서 가례(家禮), 종교로서 가통(家統)과 가묘(家廟), 역사로서 가보(家譜)와 가승(家乘)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완결된 구조를 말한다(최재석, 1986).

최봉영(1996)은 이러한 가(家) 중심의 가치체계가 구체적 사회조직으로 나타난 것을 세 가지고 보았다. 즉 본가(本家), 외가(外家), 종가(宗家) 등과 같은 혈연집단으로 이루어진 가(家) 조직, 유가(儒家), 불가(佛家), 농가(農家) 등과 같은 생업집단으로 이루어진 가(家) 조직, 그리고 이러한 국가와 같이 혈연집단과 생업집단을 포괄하는 전체집단으로 이루어진 가(家) 조직으로 구분하면서 이러한 가 조직의 원형(原型)은 본가(本家)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분야의 가(家)는 본가(本家)의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家)의 원리와 실현 또한 본가 즉 본인과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家族)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학의 관점에서는 가족을 인간이 소속하여 있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존재의 근본(根本)이 되며, 사회적 인간관계의 모형(模型)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의 발생적 근거가 되는 곳이라 보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도 매우 강조하였다.

(2) 한국 가족문화의 효(孝) 사상과 부모-자녀관계

앞서 논의한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바로 효(孝) 사상이라 볼 수 있다. 공자(孔子)는 효(孝)에 대해 유교의 근본 사상인 인(仁)이 가족 내(內)에서 구체화된 것이라 보았고, 한국의 가족주의(家族主義)⁷⁾는

7) 가족적 인간관계가 가족 밖의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를 총칭하는 용어로 여기에서는 개개의 구성원보다 가(家)가 중시되며, 인간관계는 구성원간의 상하 서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최재석, 1994). 한국사회의 공동체 인간관계는 가족집단의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인간관계를 보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형제(兄弟), 자매(姊妹)의 관계는 사회의 장유(長幼)관계에 적용이 되고, 나의 부모에 준하여 다른 사람의 부

이러한 효를 바탕으로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재석, 1994).

인(仁)에 대한 실천과 중요성에 대해 이만영(1959)도 사람의 생명은 지고(至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의 생명은 인(仁)을 실천함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러한 인이 실천되는 장(場)이 가족이며, 그 구체적 방법이 효라고 지적하였다.

효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부모-자녀관계를 유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학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한마디로 친(親)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본윤리인 오륜(五倫)에서도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 하여 그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親)이란 자(慈) 혹은 자애(慈愛)로 표현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효(孝)라고 표현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을 의미한다(백혜리, 1999).

조선시대 학동들이 천자문을 익히고 난 뒤에 배우던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모-자녀간은 그 친애함이 타고난 성품이니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여 가르치며, 자녀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효도하여 봉양 한다”⁸⁾.

동몽선습의 예와 같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즉 자(慈)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성적인 것이며 무조건적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엄격한 가르침을 포함하는 의미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효(孝)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학에서의 효는 온갖 행실의 근원으로 부모에 대한 봉양(奉養)과 존경(尊敬) 그리고 절대적 복종을 의미한다.

주자의 소학(小學)에 보면 다음과 같이 효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모를 대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의 가족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도 가족 안의 친족(親族)적 호칭을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금장태, 1987; 최재석, 1994).

8) 父子 天性之親 生而育之 愛而教之 奉而承之 孝而養之(童蒙先習: 父子有親)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리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널리 드날리게 하여서 부모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마침 이니라”⁹⁾.

최봉영(1996)은 ‘조상’과 ‘나’ 그리고 ‘자손’은 혈연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개체적 생명은 가(家)속에서 보전되고 계승되는 집단적 생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교적 사상에서 효의 기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상적 맥락에서는 집단적 생명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도리가 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도리를 지키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국가의 문화적 생명을 온전히 보전하는 도리인 충(忠)의 직분을 실천하는 것이다.

효 사상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지고 있으며, 삶의 실천적 차원에도 그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박병갑, 1998; 이성재, 2002; 최정혜, 1998; 한규순, 1988; 한영석, 1983).

2)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1) 부자유친성정

한국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효(孝)와 자(慈)라는 전통적 윤리 규범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범을 바탕으로 혈육지정, 보은(報恩), 인간의 도리 등을 내포적 속성으로 한 부모-자녀간의 유친(有親)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평등윤리 인간관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박명석, 1993).

9)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小學: 孝行篇)

한국문화의 부모-자녀관계 특징에 대해 최상진 등(1994)은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것은 앞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부모-자녀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한 감정·의식 동일체적 친애관계를 뜻하는 문화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상진 등(1994)은 그들의 연구에서 ‘부자유친성정’에 대한 개념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자유친성정은 유친, 불신, 혈육의식, 희생 및 근심의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자유친성정은 유친, 불신, 보호의식, 측은(惻隱)감 및 부담감 등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자유친성정’이라는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징은 자녀의 행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된다. 그 이유에 대해 최상진 등(1994)은 부모-자녀 간의 감정·의식 동일체적 심리상태를 매개로 한 자녀의 부모심정 충족동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혈육의식에 뿌리를 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이에 대한 자녀의 심정 공통체 의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유친, 혈육의식, 측은지정, 감정동일체화 등과 같은 부모-자녀관계 특유의 성정(性情)을 바탕으로 하며, 부자유친성정은 심정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재화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1994).

위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처럼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항상 미안감, 측은감, 고마움 등과 같은 측은지정(惻隱之情)을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표현하고 있다. 또한 부모 역시 자녀들에 대해 측은지정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일은 더 하려고 하고 섭섭함과 아픔을 느낄만한 일은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심정에 호소하는 행위를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측면들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나타나는 하나의 관계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 주류가정의 자녀교육방식은 자녀에게 독립, 경제적 자립 등의 가치를 심어주고, 사적인 부분에 대한 존중, 경쟁을 통한 개인적 성취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또한 경쟁, 라이벌의식 등은 주류 미국 문화의 인간관계에서 주요한 테마가 되는 것으로 부모-자녀 간 또는 형제사이 등에서 어린 시절부터 중요한 성장과정의 일환으로 묘사된다 (이선혜, 1998).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자녀교육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허용적으로 대하며, 자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 나가도록 격려하고 기대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구사회에서는 자기정체감(self-identity) 수립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따라서 자기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사회의 적응에 문제가 생긴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화에서 위와 같은 논리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자기정체감 수립이라는 발달과업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물론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상 한국의 청소년과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특성을 대한 강조보다는 관계의 조화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¹⁰⁾

이상적 인간(ideal person)에 대해서도 서구와 서로 다른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인생의 최종

10) 자기정체감(self-identity) 수립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최상진(2000)의 self에 대한 설명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서구인의 self는 ‘Entity-self’로 한국인의 ‘Mind-self’와는 구별된다. 서구 사회에서는 self를 ‘I’속에 실체(entity)와 같은 구조물로 존재하는 ‘존재론적 자기 실체(ontological being)’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를 대상화(objectify)하여 내성(introspect)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self는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명료화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규정된다. 이것은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상태를 뜻하는 의식과 감정의 형태를 띤다(최상진, 2000). 따라서 한국인의 self는 자기 자신에게 고유하게 실재하는 것을 스스로 찾고 구성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이상적인 또는 바람직한 성성과 가치를 자신의 마음에 내면화시키고 실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목표인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적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의존적이고 밀착된 관계로부터 분화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성태, 1978; 조긍호, 1999; Bowen, 1978; Markus & Kitayama, 1991).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의 이상적 인간은 개인의 완성은 물론 조화로운 관계의 달성이나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강조한다(조긍호, 1999).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이에 의해 규정된다고 이해하며, 독립된 개인 존재는 상상적인 원자(原子)일 뿐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기관(self-construal)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보경(2003)의 연구에서도 서구의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과 우울, 사회불안, 자존감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공적 자의식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에 따른 차이로 인해 한 문화권에서 부적응적인 관계양식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생각되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이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의 마음을 사회의 질서나 목표에 합일시켜야 한다는 사회 지향적 자기관(自己觀)과 상호의존적 자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방식에서도 서구에서 요구하는 자기 개성적, 자기 독립적 개인보다는 개인-사회 조화적, 사회공동선적, 상호 협동적 인간 또는 인격을 더욱 중요시하고 이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이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이들 연구들이 지닌 제한점 및 대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부터는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1. 예비조사
2. 연구 I
3. 연구 II
4. 연구 III

III. 연구결과

1. 예비조사

예비조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 목록의 수집과 선정에 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개방형질문 형식으로 조사하여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58명(남: 82명, 여: 7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포는 18세부터 24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1.5세였다.

2) 연구절차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6년도 7월 3일부터 2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85매였으며,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8명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실시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강의실에서 질문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응답방법과 비밀유지 등에 관해 설명을 하고 배포 및 수거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도구는 개방형 설문지에 자신의 어머니/아버지에 대해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3가지 이상 자유기술 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1차로 각 질문의 응답에 대해 의미나 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 상위개념으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징을 숙지한 대학원생 2명과 본 연구자가 참가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 방식은 3인이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상호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논의 과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 검토에서는 1차 분류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와 1차 분류 작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하위 구성요소별로 비슷한 비율의 문항을 각각 제작한 후 문항의 적절성 및 중복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총 60개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이후 3차 검토에서는 부모-자녀관련 전공 박사 3명의 검토와 토의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들은 삭제하였고, 질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총 44개의 최종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4) 결 과

(1)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대한 결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자녀들에게 어머니/아버지를 구분하여 부모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개방형 질문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표상에서는 자애, 헌신, 친밀, 존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애의 경우 이해·수용, 따뜻함·포근함, 사랑이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여자의 경우 ‘이해·수용(10.2%)’이 가장 높았고, 남자의 경우는 ‘따뜻함·포근함(12.9%)’으로 지각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헌신의 경우 ‘헌신·희생’, ‘안쓰러움’, ‘측은·불쌍’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친밀 범주에서 ‘친근함(17.6%)’이라 응답한 경우가 여학생들의 반응 중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남학생들의 경우는 ‘헌신·희생(13.3%)’에 대한 반응이 하위 내용 중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어머니에 대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반응 수에 따른 범주의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

었다. 즉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애(25.7%), 헌신(21.7%) 등의 반응이 많았던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격(23.6%), 존경(22.7%)이 전체 반응의 과반수(46.3%)에 가까운 반응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버지에 대해 엄격 범주의 하위내용 중 ‘엄한·권위적(12.4%)’이라 반응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과묵·무뚝뚝(6.1%)’, ‘보수·융통성 없는(5.1%)’ 순으로 나타났다. 존경 범주의 경우는 ‘존경·신뢰(14.3%)’, ‘책임감·성실(4.9%)’, ‘능력(3.5%)’ 순이었다. 그리고 자애 범주는 ‘따뜻함·자상함(9.6%)’, ‘이해·수용(5.7%)’, ‘사랑(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헌신의 경우 ‘희생·헌신(6.5%)’, ‘안쓰러움(4.1%)’, ‘축은·불쌍(3.5%)’ 순이었다.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지각

(단위: 명)

범주	하위내용	여자(%)	남자(%)	전체(%)
자애	이해(수용)	25(10.2)	28(11.6)	53(10.9)
	따뜻함(포근함)	17(6.9)	31(12.9)	48(9.9)
	사랑	11(4.5)	13(5.4)	24(4.9)
헌신	헌신(희생)	27(11.0)	32(13.3)	59(12.1)
	안쓰러운	14(5.7)	18(7.5)	32(6.6)
	축은(불쌍)	8(3.2)	6(2.4)	14(3.0)
친밀	친근함	43(17.6)	13(5.4)	56(11.5)
	편안함	21(8.6)	18(7.5)	39(8.0)
존경	존경(신뢰)	21(8.6)	22(9.1)	43(8.8)
	책임감(성실)	11(4.5)	11(4.6)	22(4.5)
	능력	9(3.7)	11(4.6)	20(4.1)
감사	감사(고마움)	19(7.8)	20(8.3)	39(8.0)
죄송	죄송(미안함)	11(4.5)	8(3.3)	19(3.9)
기타		8(3.2)	10(4.1)	18(3.8)
합계		245(100)	241(100)	486(100)

〈표 III-2〉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

(단위: 명)

범주	하위내용	여자(%)	남자(%)	전체(%)
엄격	엄한(권위적)	27(10.7)	34(14.2)	61(12.4)
	과묵(무뚝뚝)	14(5.6)	16(6.7)	30(6.1)
	보수(융통성 없는)	16(6.3)	9(3.8)	25(5.1)
존경	존경(신뢰)	36(14.3)	34(14.3)	70(14.3)
	책임감(성실)	10(4.0)	14(5.9)	24(4.9)
	능력	8(3.2)	9(3.8)	17(3.5)
자애	따뜻함(자상함)	20(7.9)	27(11.3)	47(9.6)
	이해(수용)	17(6.7)	11(4.6)	28(5.7)
	사랑	9(3.6)	9(3.8)	18(3.7)
현신	희생(헌신)	16(6.3)	16(6.7)	32(6.5)
	안쓰러운	10(4.0)	10(4.2)	20(4.1)
	즉은(불쌍)	9(3.6)	8(3.4)	17(3.5)
친밀	친근함	22(8.7)	14(5.9)	36(7.3)
	편안함	7(2.8)	5(2.1)	12(2.4)
감사	감사(고마움)	11(4.4)	5(2.1)	16(3.3)
죄송	죄송(미안함)	7(2.8)	3(1.3)	10(2.0)
기타		13(5.1)	14(5.9)	27(5.6)
합계		252(100)	216(100)	437(100)

(2) 문항분석을 통해 선정된 예비문항 결과

예비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례 걸쳐 문항분석과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 <표 III-3>과 같이 총 44개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문항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후속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III-3〉 예비문항

문항	어머니	아버지
1)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시다.		
2)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3) 어머니/아버지는 항상 나의 잘못을 하면 바로 지적하고 야단을 치신다.		
4)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아버지를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5) 어머니/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6)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신뢰해주신다.		
7) 어머니/아버지는 고지식하고 보수적이시다.		
8)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쟁기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9) 어머니/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10)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신다.		
11)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		
12)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13) 어머니/아버지는 권위적이셔서 대하기 어렵다.		
14)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대해 헌신적이시다.		
15)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하면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		
16)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17) 어머니/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18)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19)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20) 어머니/아버지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21)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응석을 잘 받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이 든다.		
22)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어머니/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23) 어머니/아버지에게 허물없이 대할 수 있다.		
24)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엄하게 다루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25) 어머니/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시다.		
26) 어머니/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7)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28) 어머니/아버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다.		
29)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30) 어머니/아버지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의사는 무시된다.		
31) 어머니/아버지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		
32) 나를 언제나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아버지에게 감사하다.		
33)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대해 걱정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		
34) 어머니/아버지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시다.		
35) 어머니/아버지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36)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친근하게 대하신다.		
37)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신다.		
38) 어머니/아버지는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분이시다.		
39) 어머니/아버지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40)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잘 해주신다.		
41)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가 자랑스럽다.		
42) 어머니/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셔서 걱정이 된다.		
43)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대해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44)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다.		

5) 요약 및 논의

예비조사는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항들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아버지에 대해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개방형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문화적 특징을 분석하여 척도 구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예비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는 ‘자애’ 범주가 남녀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하위내용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여학생들의 경우 친근함, 헌신(희생), 이해(수용), 존경(신뢰) 순이었고, 그 중 친근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헌신(희생), 따뜻함(포근함), 이해(수용), 존경(신뢰)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의 응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친근함은 남학생들의 응답에서는 후순위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학생들의 경우 동성 부모에 대한 친근함이 중요한 표상이 되며, 남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 따뜻함(포근함)이 하나의 주요 표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비슷한 응답양상을 나타

냈다. 즉 ‘엄격’, ‘존경’ 범주가 ‘자애’나 ‘현신’등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표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적 가치관이 한국의 가정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부모 상(像)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형태가 부모-자녀관계에서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가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서구이론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애정(친밀) 대 통제차원으로 대별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결과에서는 기존 서구이론의 친밀, 애정 등의 요소에 덧붙여 문화적 요소인 현신, 희생, 안쓰러운, 측은함, 죄송함 등의 응답이 과반수에 가깝게 나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작업은 필수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I

연구 I 에서는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44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 분석(item analysis)을 실시하여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최종후보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1)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66명(남: 265명, 여: 30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무선적인 방법으로 선정된 총 301명(남: 142명, 여: 159명)의 응답결과를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의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피험자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24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0.1세 ($SD=2.01$)였다.

2) 연구절차

질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6년도 9월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총 628매였고, 회수된 질문지는 615매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와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 나이(9~24세) 제한을 초과하는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설문지 실시는 본 연구자 및 연구의 방법과 실시 방법을 숙지한 연구보조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먼저 강의실에서 질문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비밀유지 등에 관해 설명을 하였고, 성실한 답변과 각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예비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적절한 문항으로 선정된 총 44개의 예비문항을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항의 양호도 검증을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선정된 문항의 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반분신뢰도 및 내적합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WIN 12.0이었다.

4) 결 과

(1) 문항분석(Item Analysis)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척도의 문항 양호도 검증을 위해 먼저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시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이후 해당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들은 제거하였다.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제거 기준은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가 3.0이하인 문항과 문항평균이 2.00이하이거나 4.50이상인 문항 그리고 표준편차가 .80이하인 문항을 탈락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문항 삭제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탈락된 문항들은 문항제거 기준의 조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항들을 일차적으로 제거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항들의 경우 문항 내용이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이후의 요인분석을 통해 그 탈락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문항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문항 구성 중 9개 문항을 문항제거 기준에 의해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35개의 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부모-자녀관계 척도 중 어머니에 대한 척도의 평균분포는 최저 3.04

~ 최대 4.99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편차는 최저 8.10 ~ 13.20의 분포를 나타냈고, 문항-전체 상관은 최저 3.60 ~ 최대 7.38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척도 역시 문항제거 기준에 의거하여 8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36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아버지 척도에 대한 문항들의 평균분포는 최저 3.02 ~ 최대 4.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최소 9.84 ~ 최대 13.03의 분포를 보였고, 문항-전체 상관의 경우 최저 3.52 ~ 최대 7.98의 분포를 나타냈다. 부모-자녀관계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표 결과는 <표 III-4>와 <표 III-5>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III-4> 부모-자녀관계 척도 문항분석표: 어머니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삭제 후 내적합치도 (.946)	삭제 여부
M1	4.56	.744	.645	.944	
M2	4.49	.810	.672	.944	
M3	2.38	1.069	-.029	.948	삭제
M4	4.45	.812	.476	.945	
M5	4.06	1.064	.566	.944	
M6	3.94	1.041	.624	.944	
M7	3.26	1.182	.274	.946	삭제
M8	3.83	1.192	.615	.944	
M9	3.77	1.081	.248	.946	삭제
M10	3.47	1.133	.661	.943	
M11	4.08	.999	.738	.943	
M12	3.58	1.234	.685	.943	
M13	4.42	.870	.432	.945	
M14	4.31	.925	.520	.944	
M15	4.23	1.031	.503	.945	
M16	3.95	1.070	.573	.944	
M17	3.73	1.134	.667	.943	
M18	3.66	1.116	.711	.943	
M19	4.00	.954	.718	.943	
M20	4.14	.990	.561	.944	
M21	3.54	1.173	.599	.944	
M22	4.17	.960	.523	.944	
M23	3.91	1.122	.566	.944	

M24	4.17	.950	.392	.945	
M25	4.00	1.013	.621	.944	
M26	4.78	.483	.587	.945	삭제
M27	4.70	.645	.614	.944	삭제
M28	3.97	1.029	.609	.944	
M29	4.40	.849	.637	.944	
M30	3.79	1.106	.528	.944	
M31	3.04	1.320	.545	.944	
M32	4.68	.647	.576	.944	삭제
M33	4.46	.822	.656	.944	
M34	4.48	.803	.407	.945	
M35	4.36	.806	.487	.945	
M36	4.41	.838	.716	.943	
M37	4.33	.938	.360	.945	
M38	4.14	1.007	.569	.944	
M39	4.20	.950	.515	.944	
M40	3.89	1.011	.567	.944	
M41	4.32	.863	.650	.944	
M42	3.76	1.229	.224	.947	삭제
M43	2.89	1.126	-.032	.948	삭제
M44	3.50	1.127	.461	.945	

〈표 III-5〉 부모-자녀관계 척도 문항분석표: 아버지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삭제 후 내적합치도 (.954)	삭제 여부
F1	4.33	.984	.696	.953	
F2	4.00	1.083	.798	.952	
F3	2.54	1.150	-.131	.957	삭제
F4	4.41	.914	.599	.953	
F5	3.86	1.112	.592	.953	
F6	3.80	1.082	.624	.953	
F7	2.54	1.263	.233	.955	삭제
F8	3.21	1.218	.625	.953	
F9	3.69	1.181	.296	.955	삭제
F10	3.17	1.160	.661	.953	
F11	3.59	1.159	.764	.952	

F12	3.02	1.207	.703	.953	
F13	3.62	1.303	.485	.954	
F14	3.89	1.123	.679	.953	
F15	3.90	1.254	.614	.953	
F17	3.25	1.186	.718	.953	
F18	3.20	1.139	.751	.952	
F19	3.75	1.144	.667	.953	
F20	3.78	1.208	.606	.953	
F21	3.03	1.186	.614	.953	
F22	3.99	1.115	.520	.954	
F23	3.15	1.240	.600	.953	
F24	3.59	1.260	.384	.955	
F25	3.76	1.184	.669	.953	
F26	4.55	.788	.735	.954	삭제
F27	4.54	.765	.726	.954	삭제
F28	3.78	1.177	.677	.953	
F29	4.14	1.002	.701	.953	
F30	3.52	1.193	.508	.954	
F31	3.10	1.200	.539	.953	
F32	4.54	.795	.664	.953	삭제
F33	4.14	1.067	.647	.953	
F34	4.21	1.218	.579	.953	
F35	4.19	.962	.592	.953	
F36	3.82	1.148	.726	.953	
F37	4.20	1.042	.352	.955	
F38	3.63	1.278	.542	.954	
F39	3.73	1.121	.648	.953	
F40	3.70	1.144	.556	.953	
F41	4.12	1.077	.701	.953	
F42	3.70	1.246	.187	.956	삭제
F43	2.78	1.217	-.035	.957	삭제
F44	3.37	1.191	.395	.954	

(2)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문항분석을 통해 변별된 어머니에 대한 척도와 아버지에 대한 척도의 구 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과 요인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사교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료에 대한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Kaiser-Meyer-Olkin Measure; Kaiser, 1974)은 어머니 척도의 경우 .914, 아버지 척도의 경우 .920 으로 모두 매우 좋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sphericity test)에서도 유의수준이 두 척도 모두 작아서($p<.001$)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 될 만큼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양병화, 1998).

요인에 대한 판단은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사(scree test), 공통성(commonality), 해석가능성 등의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7개 나왔으나, 스크리 검사결과 및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에 대한 척도와 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4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30 이상이며, 공통성이 높은 문항을 기준으로 문항을 채택하였다. 요인부하계수가 .30 이하 혹은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개념의 요인과 높게 관련된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20개의 문항을 최종문항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표 III-6>과 <표 III-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인 1의 문항들은 ‘어머니/아버지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등의 7개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 1에 대한 요인 명을 ‘친밀’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아버지 모습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대해 헌신적이시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등의 6개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인명을 ‘헌

신'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은 ‘어머니/아버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다.’,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시다.’ 등의 4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존경’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의 경우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엄하게 다루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어머니/아버지는 권위적이셔서 대하기 어렵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격’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요인구조의 경우 요인 1은 전체변량의 37.66%를 설명하였고, 고유가는 7.53이었다. 요인 2는 9.31%의 설명변량과 1.86의 고유가를 나타냈다. 또한 요인 3은 7.24%의 설명변량과, 1.45의 고유가를 보였고, 요인 4의 경우는 5.80%의 설명량과 1.16의 고유가를 나타냈다. 이들 4개의 요인은 어머니에 대한 전체변량의 총 60.01%를 설명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요인 구조의 경우 요인 1은 전체변량의 42.45%의 설명량과 8.49의 고유가를 나타냈고, 요인 2는 9.77%의 설명량과 1.95의 고유가를 보였다. 또한 요인 3의 경우 7.10%의 설명량과 1.42의 고유가를 나타냈고, 요인 4는 5.17%의 설명량과 1.03의 고유가를 각각 나타냈다. 그리고 이들 4개 요인은 아버지에 대한 전체변량의 총 64.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부모-자녀관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N=301$): 어머니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M31	어머니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	.836			
M12	어머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828			
M10	어머니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신다.	.795			
M21	어머니는 나의 응석을 잘 받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이 든다.	.686			
M17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670			
M18	어머니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653			
M8	어머니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쟁기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421			
M22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833			
M14	어머니는 나에 대해 헌신적이시다.	.776			
M35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738			
M4	나를 위해 고생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723			
M29	어머니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680			
M39	어머니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쟁기신다.	.629			
M28	어머니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다.	.879			
M41	나는 나의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726			
M25	어머니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시다.	.717			
M44	어머니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다.	.652			
M24	어머니는 나를 엄하게 다루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884			
M13	어머니는 권위적이셔서 대하기 어렵다.	.802			
M30	어머니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의사는 무시된다.	.621			
고 유 가		7.53	1.86	1.45	1.16
설명변량(%)		37.66	9.31	7.24	5.80
누적변량(%)		37.66	46.97	54.21	60.01

〈표 III-7〉 부모-자녀관계의 요인구조와 문항내용($N=301$): 아버지

문항 번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F10	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신다.	.946			
F8	아버지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쟁기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750			
F31	아버지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	.736			
F18	아버지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715			
F12	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671			
F21	아버지는 나의 응석을 잘 받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이 든다.	.626			
F17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510			
F22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923			
F4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859			
F29	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723			
F35	아버지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692			
F14	아버지는 나에 대해 헌신적이시다.	.671			
F39	아버지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쟁기신다.	.570			
F28	아버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다.	.821			
F25	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시다.	.778			
F44	아버지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다.	.757			
F41	나는 나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745			
F24	아버지는 나를 엄하게 다루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924			
F13	아버지는 권위적이셔서 대하기 어렵다.	.806			
F30	아버지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의사는 무시된다.	.696			
고 유 가		8.49	1.95	1.42	1.03
설명변량(%)		42.45	9.77	7.10	5.17
누적변량(%)		42.45	52.22	59.32	64.49

(3)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부모-자녀관계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반분법(split-half method)을 통해 신뢰도를 추정하였고, 각 척도의 하위요인과 전체척도에 대해 각각 내적합치도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반분신뢰도 추정은 각각의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반분신뢰도 결과는 다음 <표 III-8>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에 대한 척도를 보면, 상관계수가 .76~.54, $p<.001$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도 .79~.60, $p<.0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I-8>에 나타나 있듯이 친밀, 혼신, 존경, 엄격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9~.70의 범위를 보였다.

<표 III-8>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반분신뢰도	Cronbach's α
친밀			.76**	.92
어머니			.76**	.88
아버지	8,10,12,17,18,21,31	7	.76**	.89
혼신			.77**	.89
어머니			.75**	.83
아버지	4,14,22,29,35,39	6	.79**	.87
존경			.67**	.87
어머니			.62**	.77
아버지	25,28,41,44	4	.70**	.83
엄격			.59**	.79
어머니			.54**	.70
아버지	13,24,30	3	.60**	.74
전체			.89**	.95
어머니	4, 8, 10, 12, 13, 14, 17, 18,		.88**	.91
아버지	21, 22, 24, 25, 28, 29, 30, 31,			
	35, 39, 41, 44	20	.89**	.93

주. 역 채점 문항: 13, 24, 30,

** $p<.001$.

5) 요약 및 논의

연구 I 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종후보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 I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44 개의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문항제거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한 결과 어머니 척도에 대한 문항 9개와 아버지 척도에 대한 문항 8개를 제거할 수 있었다.

둘째, 문항분석 과정을 통해 얻어진 어머니 척도에 대한 문항 35개와 아버지 척도에 대한 문항 36개에 대해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에 대한 척도 및 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요인명은 각각 ‘친밀’, ‘현신’, ‘존경’ 및 ‘엄격’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척도에 대해 반분법을 통한 신뢰도 검증과 내적합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I 의 분석결과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척도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교차타당도와 기준의 관련 척도와의 관련성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인타당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II와 연구III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I 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첫째, 요인분석 결과 명명된 ‘현신’이라는 요인은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서로 분리된 개체로 지각하는 것과는 달리 부모-자녀 간에 일체의식이 한국인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결과의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는 ‘친밀’, ‘헌신’, ‘존경’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엄함, 무서움, 권위적인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엄격’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요인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후속 연구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3. 연구 II

이 절에서는 연구 I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연구 I의 표집에 국한된 결과인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1)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265명(남: 123명, 여: 14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24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0.2세($SD=1.71$)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질문지의 배포와 회수 그리고 실시방법 등의 절차는 연구 I과 동일하다. 즉 2006년도 9월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설문이 실시되었고,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문 실시에 참여하였다.

연구 II의 분석대상 피험자는 이 연구의 총 분석대상인 566매의 질문지 중 무선적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선정된 301명을 제외한 26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도구는 예비조사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은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분석방법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수는 Tucker-Lewis Index(TLI)와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등을 모델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4) 결 과

연구Ⅱ의 개관에서 제시하였듯이 예비조사와 연구Ⅰ을 통해 개발된 척도의 교차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goodness-of-fit)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카이자승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ucker-Lewis Index(TLI 또는 NNFI, Bentler & Bonett, 1980)과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eiger & Lind, 1980)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를 적합도지수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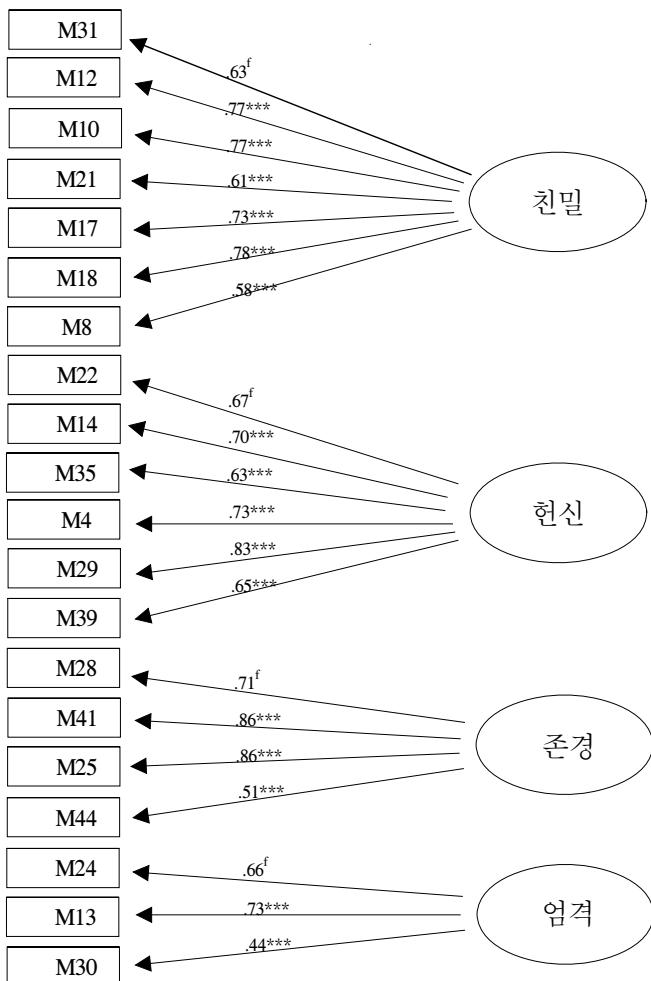
TLI(또는 NNFI), CFI는 대략 .90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홍세희, 2000)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 이면 보통적합도, RMSEA>.10 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척도의 경우 적합도 지수가 <표 Ⅲ-9>와 같이 $\chi^2(df=164, N=265)=390.48, p<.05$, CFI .906, TLI .891, RMSEA .072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척도에 대한 결과에서는 모델 적합도 지수가 각각 $\chi^2(df=164, N=265)=360.05, CFI .938, TLI .928, RMSEA .072$ 로 나타나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위의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Ⅰ에서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교차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Ⅲ-1]과 [그림 Ⅲ-2]는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표준화 계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III-9〉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척도 4요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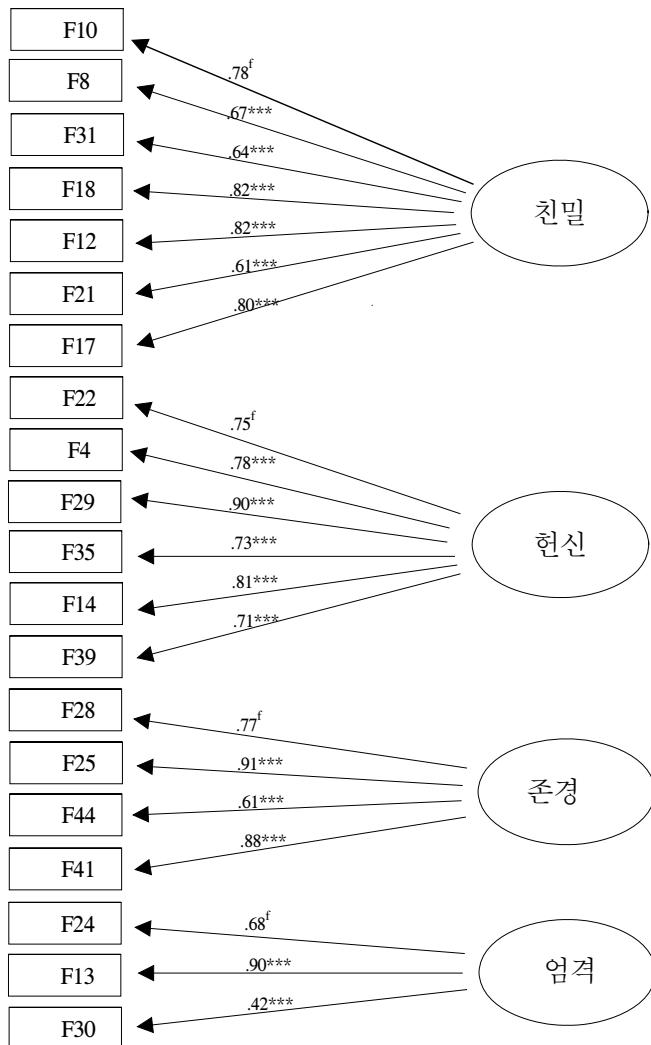
구 분	χ^2	df	CFI	TLI	RMSEA(90%신뢰구간)
어머니 척도	390.48	164	.906	.891	.072(.063-.082)
아버지 척도	360.05	164	.938	.928	.067(.058-.077)



주: *** $p < .001$.

요인간 양방향적 화살표 생략, ^f는 고정시킨 특징수.

[그림 III-1]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어머니)의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주. *** $p<.001$.

요인간 양방향적 회歸표 생략, ^f는 고정시킨 특징수.

[그림 III-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아버지)의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5) 요약 및 논의

연구Ⅱ에서는 예비조사와 연구Ⅰ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된 척도에 대해 분석 대상을 달리 하여 개발된 척도를 적용해 봄으로써 교차타당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수들의 경우 표본크기에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와 RMSEA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는 지수인 CFI 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척도와 아버지 척도 모두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가 다른 표본대상에게도 일반화 시켜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조사부터 연구Ⅱ에 걸친 일련의 연구결과를 통해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부모-자녀관련 척도와의 관계나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활용도와 실용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 III

연구 III은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검증해 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연구 II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되었던 피험자와 동일한 피험자들로 구성되었다. 즉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총 265명(남: 123명, 여: 14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피험자들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24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0.2세($SD=1.71$)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질문지의 배포와 회수 그리고 실시방법 등의 절차는 연구 I 및 연구II와 동일하다. 즉 2006년도 9월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질문지의 배포와 회수가 실시되었으며, 총 566명의 분석대상 중 확인적 요인분석에 적용되었던 265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도구

①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연구 II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이하 PRI)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응답한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어머니 척도 .91, 아버지 척도 .93으로 매우 양호한 신뢰도 계수 값을 나타냈다.

② 부모-자녀 결합 형태 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Parker, Tupling, & Brown(1979)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부모-자녀 결합 형태 척도의 Cronbach's α 는 어머니에 대한 척도 .73 아버지에 대한 척도 .74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③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s Communication Inventory)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하고, 정유미(1996)가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PC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alpha = .93$ 이었고, 폐쇄적 의사소통은 $\alpha = .88$ 로 나타났다.

④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고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5$ 로 나타났다.

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awte(1972)가 사용한 20문항 가운데,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12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스트레스 6문항 및 심리적 스트레스 6문항을 측정하는 총 12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심장 통증, 지속적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는 두려움, 불행과 우울, 근심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레스 척도 역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신체적 스트레스 $\alpha=.75$, 심리적 스트레스 $\alpha=.81$ 로 각각 나타났다.

(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먼저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인들인 ‘부모-자녀 결합형태 척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변인들인 ‘친밀’, ‘헌신’, ‘존경’ 및 ‘엄격’ 변인들과 부모-자녀관계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12.0을 사용하였다.

4) 결 과

(1)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에 사용된 척도는 Parker, Tupling., & Brown(1979)의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부모-자녀 결합형태 척도’와, Barnes과 Olson(1982)이 개발하고, 정유미(1996)가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s Communication Inventory)’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표 III-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PRI는 PBI 및 PCI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PBI와는 $r(265)=.67$, $p<.001$ 의 상관을 나타냈고, PCI와는 $r(265)=.74$, $p<.001$ 의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PRI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두 변인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65)=.40$, $p<.001$. 그러나 PRI와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PBI나 PCI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65)=-.32$, $p<.001$.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부모-자녀 결합 형태 척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와 유사한 응답 구조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공인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0〉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M	SD
1. PRI	1					3.71	.63
2. PBI	.67**	1				3.24	.37
3. PCI	.74**	.54**	1			3.13	.64
4. self-esteem	.40**	.32**	.45**	1		3.81	.72
5. stress	-.32**	-.17**	-.41**	-.56**	1	2.35	.76

주. ** $p<.001$.

(2)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요인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다음 <표 III-11>은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부모-자녀관계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어머니 및 아버지에 대한 척도의 하위요인 중 ‘친밀’, ‘헌신’ 및 ‘존경’ 요인은 PBI 및 PCI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265)=.39\sim.67$, $p<.001$.

또한 이들 세 요인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65)=.17\sim.40$, $p<.001$. 반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5)=-.14\sim-.31$,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서도 ‘친밀’, ‘헌신’ 및 ‘존경’ 요인과 스트레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r(265)=-.21 \sim -.32$, $p<.001$.

반면,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중 ‘엄격’ 요인은 어머니 및 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PBI 및 PCI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265)=-.26 \sim -.51$, $p<.001$, 또한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5)=-.22 \sim -.26$, $p<.001$. 반면, ‘엄격’ 요인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r(265)=.22 \sim .26$, $p<.001$.

이 밖에 PBI 및 PCI와 자아존중감과는 PRI와 마찬가지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65)=.32 \sim .45$, $p<.001$. PBI 및 PCI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r(265)=-.17 \sim -.41$, $p<.001$.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65)=-.56$, $p<.001$.

〈표 III-11〉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변인들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M	SD
1. 母-친밀	1												3.46	.85
2. 母-현신	.52**	1											4.26	.67
3. 母-존경	.69**	.62**	1										3.88	.86
4. 母-엄격	-.45**	-.31**	-.30**	1									4.14	.71
5. 父-친밀	.55**	.32**	.54**	-.25**	1								2.90	.92
6. 父-현신	.31**	.59**	.44**	-.17**	.60**	1							4.05	.87
7. 父-존경	.38**	.40**	.72**	-.22**	.66**	.73**	1						3.76	1.01
8. 父-엄격	-.25**	-.19**	-.26**	.66**	-.45**	-.19**	-.23**	1					2.33	.98
9. PBI	.59**	.46**	.58**	-.26**	.55**	.44**	.54**	-.26**	1				3.24	.37
10. PCI	.67**	.39**	.60**	-.51**	.66**	.42**	.52**	-.47**	.54**	1			3.81	.72
11. S.E.	.28**	.17**	.40**	-.22**	.38**	.19**	.38**	-.26**	.32**	.45**	1		2.35	.76
12. stress	-.14*	-.16*	-.31**	.22**	-.32**	-.21**	-.29**	.26**	-.17**	-.41**	-.56**	1	3.13	.64

주. * $p<.05$. ** $p<.001$.

5) 요약 및 논의

연구Ⅲ은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수행을 위해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의 부모-자녀관계 관련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관련 도구로 사용한 척도는 Parker, Tupling, & Brown(1979)등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와 Barnes과 Olson(1982)^{10]} 개발한 Parent-Adolescents Communication Inventory이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위에 제시한 척도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변인들인 ‘자아 존중감’ 및 ‘스트레스’ 척도와의 관계에서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타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IV. 종합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2. 논의 및 결론
3. 정책제언

IV. 종합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된 척도를 타문화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제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 척도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먼저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의 결과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자애’, ‘헌신’, ‘친밀’, ‘존경’, ‘감사’ 및 ‘죄송’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표상에서는 ‘엄격’, ‘존경’, ‘자애’, ‘헌신’, ‘친밀’, ‘감사’ 및 ‘죄송’ 등의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어머니/아버지 척도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요인 명은 각각 ‘친밀’, ‘헌신’, ‘존경’ 및 ‘엄격’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연구Ⅱ에서는 표집을 달리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교차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집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아버지 척도 모두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척도에 대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부모-자녀관계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아 존중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개발된 척도에 대한 실용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연구Ⅲ의 분석결과 ‘부모-자녀 결합형태 척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성에서도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 논의 및 결론

먼저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표상을 보면, 지극히 한국적인 특성 반응이 많이 표현되었다.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안쓰러움, 측은함, 고마움, 미안함 등의 응답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구의 부모-자녀 간에 나타나는 친밀, 애정, 돌봄 등의 반응과는 또 다른 측면의 결과라 하겠다. 최상진 등(1994)은 한국인의 부모-자녀 간에는 부모-자녀 간의 친밀 관계를 포함하여, ‘측은지정(惻隱之情)’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았다.

부모-자녀 간의 ‘측은지정’ 발생과정에 대해 최상진 등(1994)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부모-자녀 간 측은지정은 생의 초기에는 부모로부터 시발되나, 자녀의 성장과 사회화의 과정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향성 성정으로 내면화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이러한 성정은 부모-자녀 간에 호환적으로 교환되고 증장(增長), 보강(補強)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단순한 친밀감의 차원을 넘어 고마움, 송구스러움,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보은의식(報恩意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관계주의로 규정되는 한국문화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 중 하나는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다. 이 “우리”라는 관계적 측면이 발달되어 있는 한국인들에게 우리성을 특징짓는 핵심은 ‘마음’이며, 한국인의 우리성 관계는 기실 ‘마음으로 교류하고 마음으로 맺어지는’ ‘심정교류(心情交流)’적 관계양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이러한 교류양식의 시작과 뿌리가 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자녀 관계이며, 가족 구성원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된 것이 한국인의 사회적 인간관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심정교류(心情交流)’ 양식과 ‘부모-자녀 동일체감’ 의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현신’, ‘안쓰러움’, ‘측은함’ 등의 반응도 이와 같은 관계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심리내적 경험 양식이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연구 I 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4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에 대한 요인 명은 각각 ‘친밀’, ‘헌신’, ‘존경’ 및 ‘엄격’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각 요인의 문항 구성내용이 ‘헌신’, ‘존경’, ‘엄격’ 요인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친밀’ 요인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어머니에 대한 ‘친밀’ 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 ‘어머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등의 문항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척도의 ‘친밀’ 요인 문항 구성을 보면, ‘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아버지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쟁기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등의 문항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 문항들은 친밀이라는 가까움의 용어를 표현하는 내용 중 ‘자상함’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성별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해 포근함이나 따뜻함, 친함 등의 심리·신체적 친밀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신체적 친밀함이나 따뜻함보다는 이해, 자상함 등과 같은 심리적 지지와 든든함 등의 대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연구 I 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척도들은 주로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이론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해온 제한점이 있었으나, 연구 I 을 통해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문항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연구 II 에서는 연구 I 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II 의 목적은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개발된 척도를 적용해 봄으로써 척도의 일반화에 대한 가능성

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Ⅰ의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각각 3~5개의 요인 수를 상정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4개의 요인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구성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반분신뢰도와 내적합치도 검증을 통한 신뢰도 역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Ⅰ의 4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Ⅱ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척도의 교차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척도를 다른 연구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Ⅱ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Ⅲ은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척도와 기존 부모-자녀관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자녀 결합형태 척도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요약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서구적 의미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심정교류’와 ‘측은지정’이 발달되어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척도에서는 돌봄과 통제라는 차원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문화적 관련 변인인 헌신, 희생, 측은한 마음 등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구성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척도이며, 다른 집단에도 적용 가능한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령별(아동, 청소년, 성인) 비교 분석을 실시해 본다면,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표상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표상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표상을 검증해 본다면,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양 방향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하위요인을 유형화하여 이를 관계적 측면에서의 부적응을 겪는 청소년 뿐 아니라 심리내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부모와의 어떤 요인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정책제언

이 연구는 연구주제와 목적의 특성상 정책연구라기보다는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제언 보다는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정책제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둘째로는 부모-자녀관계 관련 이론연구와 실천연구의 방향과 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및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방안에 관해 제언하였다.

첫째,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나 정책방안 마련에 있어 문화적 보편성과 함께 문화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함

현대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은 학교 등의 교육기관 및 다양한 사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관계는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는 핵심 되는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학분야에서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국내 연구들은 서구 문화에 근거한 서구식 부모-자녀관계 관련이론들이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해 온 제한점이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무엇보다 해당 사회의 문화 및 가치에 기반 해야 한다.”는 Ambert(1994)의 말을 빌리지 않고도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연구나 이와 관련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부모-자녀관계의 문화

적 특징에 대한 이해 및 고찰과 이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나 정책수립에 있어 부모-자녀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문화보편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 특수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방안을 만들어갈 때 보다 타당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문화에 적실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관련 이론연구와 실천연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전술하였듯이 부모-자녀관계는 한 개인의 발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부족하였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효율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적은 비용에 고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이다.

청소년 비행, 약물중독, 학교부적응, 폭력 등의 소위 청소년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또래나 유해환경의 영향도 크지만 이들 문제행동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역기능적 관계가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이론연구와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예컨대, 이론적 연구로는 ‘세대 간 갈등원인 탐색과 세대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혹은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효율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등의 연구주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인 ‘대학입시제도로 인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등도 필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대응방안 연구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

저 부모-자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혹은 한 가족이 더불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족 만들기 캠프 운영방안 연구’ 등의 주제가 실천적 차원에서의 연구주제로 가능할 것이다.

이상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핵심요소가 되는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와 이의 활용은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청소년 지원정책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부모 및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부각되는 가정해체와 이로 인한 청소년 문제의 증가는 한 개인의 불행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모교육 이론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비교적 최근부터 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3년부터 3차 5개년 기간 동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종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모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비해 활용범위와 참여도를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이란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뜻한다. 이는 부모-자녀 간 갈등의 해결 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사회의 젊은 부모들은 과거 전통사회와 비교해 볼 때 성장과정에서 자녀 양육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현대가족 혹은 대가족체제의 영향으로 형제수가 많아 친동생들이나 친척들의 어린 동생들을 돌볼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가족체계를 보면, 부모와 한 두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더 증가한다고 하겠다.

또한 과거에는 부모의 역할이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 등과 같은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function*)을 담당하는 아버지의 역할(*fathering*)과 자녀에 대해 보호와 수용의 감성적 기능(*emotional function*)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역할(*mothering*)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구분이 많이 없어졌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이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인부모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려서부터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화의 주요기관인 교육현장에서 부모교육과 관련된 과목이나 프로그램들을 정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금장태 (1987). 退溪의 家庭觀. **退溪學研究 1.**
- 금장태 (1998).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태 (1978). 성숙인격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소영 (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연, 김득성 (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99.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1-24.
- 김재은 (1974).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정희 (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경환 (1986).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 김경동·안청시(편), **한국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33-267.
- 박금희 (198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합도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불안수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명석 (1993). 동과 서. 서울: 탐구당.
- 박병갑 (1998). **초등학생들의 효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리 (1999). 현대 부모-자녀관계와 조선시대 부모-자녀관계의 관계. 유아 교육연구, 19(2), 59-76.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

- 의학회 31(5), 979-992.
- 심혜숙, 신영규 (1994).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 89-103.
- 안양희 (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이계학 (1991). 인격교육의 이론정립을 위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만영 (1959). 재물보 2(1).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선훈 (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6(2), 151-176.
- 이성재 (2002). 서울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의 효 의식과 효행의 실태분석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이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
- 이수원 (1984). 한국인의 인간관계 구조와 정. *교육논총(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 95-125.
- 이수원 (1999). 중용의 심리학적 탐구.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인 모색*,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이승환 (1999). 문화심리와 자아형성: 한국적 문화심리학의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 하계 심포지움 자료집*, 21-33.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모 (1997). 심리학 방법론의 개념적 재구성: 서양심리학 방법론이 시사.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자료집*, 155-174.
- 장명숙 (1982). 가정관리학. 서울: 교문사.
- 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갑순, 박영신, 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효능감, 과거성취도를 중심으로.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5-321.
- 정유미 (1996).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궁호 (1997). 선진유학사상에 담긴 심리학적 함의. '동양심리학의 모색'.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자료집*, 41-106.
- 조궁호 (1999). 선진유학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문제.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인 모색*, 31-162, 서울: 지식산업사.
- 최봉영 (199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I)*.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3-237.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최상진 (1999a). 문화심리학: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 하계 심포지움 자료집*, 1-20.
- 최상진 (1999b).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인 모색*,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65-82.
- 최상진, 한규석 (1997).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73-96.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최연실 (1996).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호 (1997).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상관성.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최정혜 (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 19(2).
- 최희량 (1998).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문제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 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 연구. *심리학에서의 비교 문화연구*, 87-172. 성원사.

- 한규순 (1988). 중학생의 효에 대한 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덕웅 (1999). 한국유학의 심리학.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인 모색,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한영석 (1983). 고교생의 효 개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준 (1994). 분리 개별화와 가족 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철수 (2003). 한·중 부모 양육태도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학生生활연구 24, 39-7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Ambert, A. M. (1994).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arenting Social Change and Social Constru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29-543, August.
- Amerikaner, M., Monks, G., Wolfe, P., & Thomas, S. (1994). Family interaction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614-620.
- Anderson, S. A., & Gavazzi, S. M. (1990). A test of the Olson Circumplex Model: Examining its curvilinear assumption and the presence of extreme family types. *Family Process*, 29, 309-324.
- Ba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arbarin, O. A. (1984). *Measuring basic family process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amily Proces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umrid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eaubien, C. O.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ell, R. (1982).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a runaway: Interaction types and the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rry, J. W. (1980). Introduction to methodology. In H. C. Triandis, & W. W. Lambert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Methodology, Volume 2*, (p.1-29). Boston: Allyn and Bacon.
- Berry, J. W., Pootinga, Y. H., Marshall, H. S., & Dasen, P. E.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ronfenbrenner, U. & Mahoney, M. A. (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2nd ed.). Hinsdale, III: The Dryde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e, J. (1984). *The Family Types of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Cawte, J. (1972). *Cruel, poor and brutal na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anziger, K. (1983). Origins and basic principles of Wundt's Volkerpsychologi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303-313.
- Dayley, J. G., Sowers-Hoag, K. M., & Thyer, B. A. (1991). Construct validity of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5, 131-147.
- Druckman, J. M. (1979). A family oriented policy and treatment program for female juvenile status offend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627-639.
- Farrell, M. P., & Barnes, G. M.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19-132.
- Feldman, S. S., & Rosenthal, D. A. (1991). Age expectations of behavioral autonomy in Hong Kong, Australian and American Youth: The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s'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1), 1-23.
- Fishbein M., & Ajzen, I. B. (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2nd ed.). Scott: Foresman & Company.
- Garbarine, J., Sebes, J., & Schellenbach, C. (1985).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 174-183.
- Gergen, K. 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ergen, K. J. (1982). *Toward transformation in social knowledge*. New York: Springer-Verlag.
- Gergen, K. J. (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Content and implications. In K. J. Gergen & K. E. Davis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Springer-Verlag.
-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95). Family 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5th ed.). Itasca, IL: Peacock.
- Greenberger, E., & Sorensen, A. B. (1974). Toward a concept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329-358.
- Greenfield, P. M., & Suzuki, L. K (1998). Culture and human development: Implication for parenting education, pediatrics, and mental health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ed. S. Harkness and C.M. Super. New York: Guilford.
-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Harré, R. (1993). *Social being* (2nd Ed.). Oxford: Blackwell.
- Heilburn, A. B. (1973). *Aversive Maternal Control: A Theory of Schizophrenic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eilbrun, A. B. Orr, H. K., & Harrell, S. N. (1966). Patterns of parental child rearing and consequent vulnerability to cognitive disturbanc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51-59.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r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83). Dimension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lations. In J. B. Deregowski, S. Dziurawiec, & R. C. Annis(Eds.), *Explor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Netherlands: Swets Zeitlinger.
- Hwang, K. K. (1998). Guanxi and Mientze: Conflict resolution in Chinese socie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7(1), 17-42.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im, U. & Choi, S. C. (1994). Chapter. 11.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226-257).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Kim, U., & Berry, J. W. (1993). *Indigenous psychologies*: Experience and research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CA: Sage.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New, R. I., & Richman, A. L. (1996). Maternal beliefs and infant care practices in Italy and United States in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Their Origins, Expression, and Consequences*, ed. S Harkness and C.M. Super. New York: Guilford.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3-28.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35, 550-560.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Grune & Stratton, New York.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ortner, J. (1981).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of families in trea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 Rodick J. D., Henggeler, S. W., & Hanson, G. L. (1986). An evaluation of the family

-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In M. Rosenberg(Ed.)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공성화, 안향립 역(1991). 가족치료. 서울: 성화사.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ger, J. H., & Lind, J. M. (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 Tamura, T., & Lau, A.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 319-340.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van Hoorn, W., & Verhave, T. (1980). Wundt's changing conceptions of a general and theoretical psychology. In W. G. Bringmann, & R. D. Tweeney (Eds.), *Wundt Studies: A Centennial Collection*. Toronto: Hogrefe.

부 록

부록. 설문지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개발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등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척도개발 결과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위해 질문의 답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척도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5. 9.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연구책임자: 최 인 재(Tel. 02-2188-8876, E-mail: jae713@youthnet.re.kr)

1.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아버지에게 느꼈던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아래의 보기 중 해당 되는 번호를 골라 네모 칸 (어머니/아버지) 안에 각각 써 넣어 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이다	④ 약간	⑤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문 항	어머니	아버지
1)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시다.		
2)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3) 어머니/아버지는 항상 나의 잘못을 하면 바로 지적하고 야단을 치신다.		
4) 나를 위해 고생 하시는 어머니/아버지를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5) 어머니/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6)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신뢰해주신다.		
7) 어머니/아버지는 고지식하고 보수적이시다.		
8)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작은 것 하나도 쟁기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9) 어머니/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10)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신다.		
11)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		
12)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13) 어머니/아버지는 권위적이셔서 대하기 어렵다.		
14)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대해 헌신적이시다.		
15)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하면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		
16)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17) 어머니/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18)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19)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20) 어머니/아버지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보기)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이다	④ 약간	⑤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문 항	어머니	아버지
21)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응석을 잘 받아 주셔서 편안한 마음이 듈다.		
22)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어머니/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23) 어머니/아버지에게 허물없이 대할 수 있다.		
24)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엄하게 다루셔서 무섭게 느껴진다.		
25) 어머니/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시다.		
26) 어머니/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7)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28) 어머니/아버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다.		
29)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30) 어머니/아버지와 의견이 다를 때 내 의사는 무시된다.		
31) 어머니/아버지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		
32) 나를 언제나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아버지에게 감사하다.		
33)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대해 걱정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		
34) 어머니/아버지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시다.		
35) 어머니/아버지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36)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친근하게 대하신다.		
37)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신다.		
38) 어머니/아버지는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분이시다.		
39) 어머니/아버지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쟁기신다.		
40)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잘 해주신다.		
41)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가 자랑스럽다.		
42) 어머니/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셔서 걱정이 된다.		
43)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대해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44)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 이시다.		

2. 다음은 평소에 아버지/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느꼈던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네모 칸 안에(어머니/아버지) 각각 써 넣어 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이다	④ 약간	⑤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문 항	어머니	아버지
1)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2) 때때로 어머니/아버지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3) 어머니/아버지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4)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5) 우리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빤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얘기를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편이다.		
6) 어머니/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떤 기분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7) 나는 어머니/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8) 내가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려워 안하고 어머니/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다.		
9)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다.		
10) 어머니/아버지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머니/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11) 나는 어머니/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12) 나는 어머니/아버지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13)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어머니/아버지께서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시다.		
14) 어머니/아버지께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시다.		
15) 어머니/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화제 거리가 있다.		
16)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17) 내 속마음을 어머니/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18)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시다.		
19) 어머니/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화내거나 꾸중하실 때 나는 모욕감을 느낀다.		
20) 어떤 일에 대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어머니/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3. 다음의 문항들은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네모 칸 안에(어머니/아버지) 각각 써 넣어 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아니다	② 약간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

문항	어머니	아버지
1)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2)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3)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4)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5)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6)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다정 다감 했다.		
7)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8)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9)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10)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11) 어머니/아버지는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12)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었다.		
13)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어린애 취급 하였다.		
14)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15)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6)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원치 않은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17)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주었다.		
18) 어머니/아버지는 나와 가끔 이야기 하였다.		
19)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20) 어머니/아버지는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겼다.		
21) 어머니/아버지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22)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다.		
23)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과잉보호 하였다.		
24)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칭찬해 주었다.		
25)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4. 다음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응답란에 써 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아니다	② 약간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

문 항	응답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듈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음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응답란에 써 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아니다	② 약간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

문 항	응답	문 항	응답
1) 자신의 건강		7) 부모와의 관계	
2) 자신의 외모		8) 친구와의 관계	
3) 자신의 성격		9) 형제/자매와의 관계	
4) 교수님과의 관계		10) 가정생활	
5) 학교생활		11) 사회생활	
6) 학업성적		12) 경제적인	

6.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물음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 써 주십시오.

1) 성별 : () 남 () 여

2) 나이 : (만) 세)

3) 부모님 결혼관계 상황(한 항목만 선택) ()

- ① 함께 살고 계십 ② 별거 중 ③ 이혼하십
- ④ 한 분 사망 ⑤ 두 분 모두 사망

4) 현재 가정의 월 평균 소득 ()

- ① 0~200만원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 ④ 400~500만원 ⑤ 500만원 이상

5) 종교 ()

- ① 기독교 ② 카톨릭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음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 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 · 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 · 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별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상욱 · 김신영 · 박승호 · 유성렬 · 임자연 · 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별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별달 종합지표 / 김상욱 · 김신영 · 박승호 · 유성렬 · 임자연 · 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 · 오승근 · 권두승 · 전명기 · 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06-R05 국제준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문수준 실내연구 I - 청소년인문지표 개발 / 최창욱 · 박영균 · 김진호 · 임상택 · 전성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 · 천정웅 · 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 · 정준미
06-R05-3 청소년 별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 · 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 · 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 · De-Ping Lu · 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 · 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 · 조정문 · 김이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용 현황 / 장근영 · 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별전방안 / 윤철경 · 조홍식 · 김향초 · 이규미 · 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 · 김지혜 · 류명화 · 정익증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 · 권해수 · 정찬석 · 김귀랑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이기재 · 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 · 홍승아 · 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끼 · 마츠다 시게끼 · 무꾸오 아사코 · 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온 · 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안드레아스헤네커·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윤옥경·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방은령·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황진구·한도희·김종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김영희·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윤숙

■ 응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윤숙·이혜연·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백혜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김영지
-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 · 이민희
-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 · 오해섭 · 이장현 · 신순갑
-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 · 서정아
-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 · 김경준 · 최창욱 · 황진구 · 성윤숙 · 오승근 · 양계민
-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 · 김기현
-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 · 임지연
-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 · 장근영
-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 · 김기현
-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칠경 · 김경준 · 박병식 · 정의중
- 06-R44 청소년행복 · 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 · 이경상 · 백혜정
-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 · 김신영 · 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 06-S02 「한국 청소년 별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티당도 검증」 (6.21)
-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 06-S06 「청소년의 기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수시과제)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인 쇄 2006년 12월 14일

발 행 2006년 12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경성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45-8(93330)